



개발을 대중국 대립으로 바라보는 것은 "중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역 안정성과 미국 이익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중동 침입을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한 "냉전 2.0" 프레임의 일환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의 제한 사항과 능력 부재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이 지배적인 헤게모니 역할을 맡기에 부족하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중국의 "침투" 속에서 지역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동유럽 및 인도-태평양과 같은 기타 글로벌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자에서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계획에 관여하고 있으며 미국 외교 정책 기관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0월 7일 이후로 이스라엘-사우디 정상화 협정이 중국의 지역 야심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이러한 협정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영향력 경쟁으로 모든 중동의 발전을 보는 것은 잘못된 가정에 기반한 정책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에게 순이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순간을 이용하여 미국을 비난하고 중립적 중재자로 나타내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에게 이러한 전략이 꼭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가자에서의 이스라엘 군사 캠페인에 대한 팔레스타인 국가 선언과 이스라엘 군사 캠페인에 대한 비판을 여러 차례 제기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자에서의 전쟁이 악화되거나 지역 전방위 전쟁으로 확대된다면 중국이 중동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중동에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멀어진 것을 즐기고 있을지라도 중동에서의 그들의 이익 또한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베이징의 중동 전략은 순전히 기회주의적인 측면을 유지할 것입니다.

번역: 김동현

출처: <https://www.cato.org/commentary/us-has-nothing-fear-china-middle-east>